

2012. 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MBC

201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2.11.29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명수, 송인덕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 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10	-	1	19	-	1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8	10	1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 건	7 건	
교양	토크엔 조이 시청자 공감하는 출연자 선정해야	시청자 눈높이 맞춰 공감하는 출연진 섭외	10월
보도	엑스포 과학공원 대기업 롯데 진입 계속적으로 환기시켜야	지속적으로 토론 및 기획 뉴스로 다루고 있어	10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패널섭외시 전문성 있는 분 섭외	전문성 있는 패널 섭외	10월
보도	뉴스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	요일별 기획 기사 제작	10월
보도	서해안에 허베이 스프리트호가 기름 유출 사고 5주년 그 후 기사 필요	서해안에 허베이 스프리트호가 기름 유출 사고 5주년 기사 다뤄	10월
교양	시사플러스 자막 산뜻한 디자인으로 개선 필요	시사플러스 자막 디자인 변화 줌	10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MC 안정감 있게 진행해야	토론 프로그램 MC 진행에 대한 주문과 사전 리허설 철저하게 하고 있음	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오래간만에 세트가 밝게 바뀌었다. MC와 출연자 중심으로 소품 세트가 다소 혼란스러워 특히 출연자가 세트에 가려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김영광).	야심차게 ‘아침이 좋다’세트를 바꾸어 좋은 평가가 많다. MC석과 출연자석의 다소 어수선한 부분은 바로 수정하였다.	편성 수용
교양	‘토크 앤 조이’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프로그램 성패를 결정짓는다. 최근 출연진을 살펴보면 연예인 위주로 되어있다. 출연진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자MC의 역할이 미약하다. 허참의 캐릭터에 묻혀서 그런 것인지 여MC의 대본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여MC의 역할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김영광).	지적한대로 ‘토크 앤 조이’는 출연자가 매우 중요하다. 시청률을 위해서 많이 알려진 인물위주로 출연하지만 지역의 감동적인 인물을 계속 발굴할 것이다.	편성 수용
보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우리지역에 내놓은 선거공약을 꼼꼼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공약들은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김영광).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점검하고 비교 분석하는 기획 뉴스 ‘선택 2012, 충청의 표심은?’이 시리즈로 방송 중이다.	보도 수용
보도	뉴스의 기획코너인 ‘기행탐사 충청’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기획했던 의미가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김영광).	충청의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로 좀더 친근한 소재를 개발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18대 대선 민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패널들 간의 토론이 있었다. 1시간 프로그램에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끝날 때 허둥지둥 끝나는 기분이 들었다. 지역 쟁점과 현안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구성의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본다(한찬희).	지역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니터 해서 진행원고에 반영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생방송 아침의 창’에서는 한통에 50원하는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 시청자참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 시청자참여 코너를 유지해야만 하는지? 이 코너를 대체할만한 다른 코너는 없는지 궁금하다(김영광).	정보이용료에 의해 모아진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 참여 방법은 우리뿐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세트가 밝게 교체되어 아침분위기에 맞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현장성을 살린 것도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계속 정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한찬희).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세트인데 좋은 평가를 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청자에게 더 다가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11/9 ‘시사플러스’ <출범 4개월, 세종시의 정주여건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이전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을 하였다.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한 후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행복청 입주지원팀의 앞으로의 각오와 방향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관계 담당자들의 인터뷰는 당연한 대답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취재한 프로듀서가 직접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이 더해지면 더 나은 시사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오덕성).	심도 있는 인터뷰의 부족, 구성의 느슨함을 제작진에게 전달했다.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 그리고 다각적인 취재와 면밀한 구성으로 더욱 사랑받는 시사플러스가 되도록 정진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11/24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2012 제주올레길 축제 / 어묵공장」 등이 소개되었다. ‘전국이 보인다’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템의 선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사 주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홍보성 방송이 되지 않고,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오덕성).	객관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언론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이 보인다’는 지역MBC 계열사가 서로 보내온 아이템을 다루는데 좀 더 꼼꼼히 체크하여 행사 홍보성 아이템을 거르겠다.	편성수용
교양	11/14 테마여행 ‘길’ 「최명희의 혼불을 찾아서」 오서산의 은빛 억새의 장관과 주변지역의 청라저수지, 남포벼루, 은행나무길 등 문화 및 자연자원과 먹거리 등의 소개는 지역 관광과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명산을 적절한 시기에 주변의 전통	‘테마여행 길’은 민방소재 지역 MBC 9개사가 번갈아 제작하는 형태를 띤 프로그램이다. 9개사가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자연, 문화, 삶, 먹거리 등을 편안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한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과 문화관광자원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가족여행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형식이 자연 또는 문화자원 소개-먹거리의 기존 형식에 얽매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지역의 먹거리는 '길'을 여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소재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용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였다. 또한 오서산을 소개로 '길'을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촬영의 여정의 흐름을 서두에 그래픽 등을 통해 소개하는 내용이 없어서 방송을 보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 시청자에게 정보제공 측면에서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p> <p>또한 부제를 <최명희의 혼불을 찾아서>라고 정하였다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오서산의 은빛 역세나 주변 지역의 문화, 전통, 분위기 등이 '대하소설 혼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개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 '대하소설 혼불'의 실제 배경이 된 지역은 전북 남원이고, 실제로 '혼불문학관'이 설치되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제를 '혼불'과 관련하여 정하였다면, 대상이 된 '오서산' 주변의 지역문화나 자연환경 등 어떤 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정하였다는 내용이 서두에 조금이라도 소개 되어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천 토굴을 소개하면서 '홍성군'을 '홍천군'으로 말한 내레이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된 점이 아쉬웠다(오덕성).</p>	<p>이번 의견주신 프로그램 중 '최명희의 혼불~'은 전주MBC 제작프로그램이다.</p> <p>저희 대전MBC 제작프로그램은 서해의 등대 '오서산'이다. 프로그램 모니터에 혼돈이 있으신 것 같다.</p> <p>지적하신 그래픽 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가능한 아름다운 영상을 살리고자 간단히 자막처리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p> <p>단지, 예전에는 잠깐의 그래픽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요즘은 시청자들이 정보를 갖고 인터넷으로 상세한 검색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였지만 앞으로 제작시 유념하겠습니다. 또 먹거리 부분도 가능한 간단하게 처리할 계획이다.</p> <p>성우 부분은 시청자들이 혼돈되지 않게 발음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p>	<p>편성 의견참고</p>
<p>보도</p>	<p>'생방송 토론마당' 출연자 자리배치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시장 등 기관장은 늘 세트의 중심에 위치에 있어 다른 패널들의 중심에 있다. 패널들의 입장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해 볼 때 기관장을 늘 토론의 중심 위치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 일이다(장동환).</p>	<p>고려해 보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대전시장이 인터넷뉴스지 '디트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지역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p>	<p>고려해 보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아이템을 찾아 방송을 하고 있다. 미리 앞서서 의제설정을 해봄직 하다. 예를 들면 주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민동 아파트주민들은 지역축제를 자발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 모임이 활성화된 곳이 여러 있다. 이런 소재를 발굴하여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시사플러스’에서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문화 관련 소재도 다루어졌으면 한다. 대전문화재단이 있는 것처럼 문화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만한 소재가 있다(장동환).</p>	<p>항상 촉각을 세우고 좋은 아이টে을 찾기위해 제작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말씀하신 아이টে도 좋은 소재라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관련 아이টে도 시사플러스에서 가끔은 다루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겠다.</p>	<p>편성 수용</p>
교양	<p>‘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은 민영방송사의 메디컬 플러스’와 비교가 된다. 대전MBC는 의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차트와 함께 병명을 다소 딱딱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TJB(민영방송사)는 촬영팀이 현장병원을 찾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어 생동감은 TJB에서 더 느낄 수 있었다. ‘건강플러스’ 방영시간 분량이 TJB보다는 많지만 구성면에서는 TJB가 다양하다고 본다. ‘건강플러스’의 구성을 다시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유덕순).</p>	<p>TJB 건강 프로그램이 구성면에서 더 다양하다는 지적에 수긍하기 어렵다. ‘건강플러스’ 중 <맛있는 처방전>코너는 유익하고 시청자에게 좋은 정보가 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플랫폼에 런칭중이다.</p>	<p>편성 반론</p>
교양	<p>11/9 ‘시사플러스’ <출범 4개월, 세종시의 정주여건은?> 다각도로 세종시 정주여건을 심층취재한 것이 좋아 보인다. 너무 외형적으로 국제도시를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점 지적해 준 것은 적절했다. 아쉬운 점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 입장이 반영됐어야 하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의견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본인들이 방송출연에 곤란을 가지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솔직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p>	<p>공무원 인터뷰가 빠진 것의 아쉬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방송 후 제작진에게 바로 지적하였다. 취재 당시에는 세종시에 내려온 공무원이 거의 없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다(김경숙).		
기타	지역방송의 모바일 서비스가 서울 지상파방송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미약하다. 태블릿 PC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보기도 하는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올 때 천안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사로서 모바일 관련 서비스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김경숙).	지역방송의 모바일서비스는 투자 대비 이익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내년(2013년)에 모바일 웹기반의 서비스(다시보기, 뉴스정보, 실시간방송, 뉴스제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 모바일 서비스가 일부 되지 않는 지역은 방송전파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3G, 4G망을 이용한 서비스이므로 망의 신호가 미약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이동통신사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기술 의견참고
보도	대전시의 '드라마페스티벌' 진행의 문제점 지적은 시의적절했다. 대전시에서 이 행사를 왜 하는지 목적적합성도 문제이거나와 어찌 보면 기획사 배불려주기 이외 대전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무책임한 대전시의 전시성행사에 대해 심층취재하여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김형주).	대전시와 충청도 등 지자체의 예산감시기능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심층취재 등을 통해 언론의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대전 정국이라 중앙방송사들도 토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패널층이 두텁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특정 출연자가 이곳 저곳 방송사를 돌아가면서 출연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대전MBC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한 타 방송사 출연자와 겹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구성을 짜 시청자들에게 토론 프로그램의 묘미를 선사해 주었으면 한다(김형주).	다양한 인터뷰이, 전문적인 패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을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기획기사를 통해 중산층에 관해 이들을 보듬고 껴안고 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소외받고 어려운 시민들을 조명해 주는 기사를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박희원).	참고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